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응체계 재정비

### 전주시보건소, 화산선별진료소 오후 9시까지 연장·휴일 없이 운영·원스톱 진료기관 100곳으로 확대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늘리고 코로나 역학조사와 환자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방역체계를 재정비한다고 27일 밝혔다.

보건소는 화산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오후 6시까지에서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확진자 급증 추세를 감안해 휴일도 없애기로 했다.

동네 병원에서 진단, 검사, 진료, 처방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원스

톱 진료기관 수도 71개소에서 100개소로 늘려 확진자 재택치료를 도울 계획이다.

보건소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재택치료자와 보건소, 전복도, 전담병원 등 비상연락체계를 확보하고 24시간 응급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병상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도 긴밀히 구축하기로 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내 확진자를 위한 의료진담기동반 운영도 정신요양시설로까지 확대할 계

획이다.

4차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진여 백신을 이용한 병·의원 당일 접종을 권장하는 한편, 취약시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촉탁의료기관과 연계한 사전 대의약과 방문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실내마스크 착용 △환기 및 주기적 청소 △손 씻기 및 사적모임 최소화 △사무실 밀집도 완화 및 불요불급한 모임 자제 또는 축소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지도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세에 있다"면서 "대응인력 총원 및 원스톱 의료기관 확대, 선별진료소 연장 운영, 응급이송체계 확립, 고위험군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및 원스톱 진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재즈공연과 전주천변 자전거라이딩, 한옥마을 백일홍 등이 전주시민과 여행객들이 뽑은 여름철 대표 전주여행 테마로 뽑혔다. (사진은 전주재즈페스티벌 모습)

## 전주 여름테마여행 TOP3 선정

### 전주여행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재즈공연 전주천변 자전거라이딩·한옥마을 백일홍 등 꼽혀

재즈공연과 전주천변 자전거라이딩, 한옥마을 백일홍 등이 전주시민과 여행객들이 뽑은 여름철 대표 전주여행 테마로 뽑혔다.

전주시는 '여름휴가철에 꼭 가고 싶은 전주여행'을 주제로 '비지전주' 온라인 플랫폼(유튜브·인스타그램)과 '올 여름을 전주(팔로워 8.5만명)' 플랫폼을 활용해 전주 시민들과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전주 여름테마여행 TOP3로 △멈출 수 없는 흥! '여름축제형' △한여름밤의 꿈 '여름밤 느낌형' △자연이 최고! '보태니컬형' 등이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책 전라감영이 이름을 올렸다. '보태니컬형'으로 한옥마을 백일홍과 수국에 제철인 전주수목원 등이 꼽혔다.

시는 이번 선정된 여름테마여행 콘텐츠를 활용해 8월 한 달 동안 전주 테마여행 인증을 하면 이벤트 선정자에게 전주 숙박쿠폰을 지급하는 등 이벤트를 추진키로 했다.

나아가 여름테마여행지 홍보를 위한 릴스(반복되는 짧은 동영상)를 제작하는 등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다 많은 국내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 전주만의 여름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

'여름축제형'으로는 주말 저녁 전주 곳곳의 재즈공연, 조선탈 공연 등이 뽑혔으며, '여름밤 느낌형'에는 전주천변 자전거라이딩, 달밤산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여름콘텐츠 TOP3 선정은 국내여행 수요 촉진을 위해 마련했다"며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발굴과 다양한 홍보마케팅으로 전주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한다면 전주가 사계절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국악 분야 최고 등용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열린다

### 8월 21일~9월 5일 국립무형유산원·전주대사습청 등서 개최

국악 분야 최고 등용문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관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펼쳐진다.

전주시와 (사)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가 주최하고, 전주대사습놀이 조직위원회와 (주)문화방송, 전주 MBC가 주관하는 제48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와 제40회 학생전국대회가 다음 달 21일부터 9월 5일까지 16일 동안 국립무형유산원과 전주대사습청 등 전주 일원에서 개최된다.

일반부 전국대회는 △판소리명창 △

무용명인 △농악 △기악일반 △무용일반 △민요일반 △가야금병창일반 △중도 △판소리일반 △고법일반 △시조일반 △판소리신인 △무용신인 △민요신인 △고법신인부 등 15개 분야로 나뉘어 치러진다.

국악 꿈나무들이 참여하는 학생전국대회는 △초중판소리 △판소리 △농악 △현악 △관악 △무용 △민요 △가야금병창 △시조 △고법부 등 10개 분야로 치러진다.

시와 전주대사습놀이 조직위는 대한민국의 권위를 자랑하는 판소리

명창부 장원에게 대통령상과 함께 상금 70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 신설된 고법일반부를 통해 고법 대회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주최 측은 무엇보다 이 대회가 국악 분야 최고 등용문인 만큼 다음 달 23일과 24일에 전야제 축하공연을, 9월 3일에는 대사습 장원자 밤 공연을 무대 위에 올려 관람객들의 흥을 돋울 계획이다.

대회 장소를 국립무형유산원, 전주대사습청, 전주시청, 전주향교, 전주 천안방지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대회 참가 신청은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누리집(www.jtss.or.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청중평가단 접수는 다음 달 7일부터 20일까지 한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고법일반부의 신설로 더 많은 국악인들이 실력을 뽐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전통예술 향유 기회의 확대에 대증화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생각한다"면서 "올해도 최고의 국악인들이 펼치는 국악 축제를 즐겁게 감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특색 있는 간판 개선으로 동문거리에 활력 불어넣는다

### 전주시, 행안부 '2023년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 내년까지 동문길 일대 순차 교체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간판개선사업' 공모에서 '동문길 간판개선사업'이 선정돼 국비 2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국비를 포함해 내년까지 총 4억2천만 원을 들여 경기전길 일부를 포함한 동문길 일대 약 550m 구간 상가의 간판을 교체할 계획이다.

간판 디자인은 전통과 근대의 조화라는 거리 콘셉트를 바탕으로 주민 협의체와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개별업소의 독창성이 두드러지도록 설계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동문길 상인들과 협의해 특색있고 지역의 특성에 걸맞은 간판 디자인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1

월까지 순차적으로 간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시는 이 일대 간판이 전통과 근대의 조화라는 콘셉트에 맞게 정비되면 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동문길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등 침체된 동문거리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시는 그간 노송천 상가, 풍남문 로터리, 전라감영 테마거리, 삼천동 막걸리골목, 전주역 차마길, 서부시장 등에서 거리 특성에 맞는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유상봉 전주시 건축과장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합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만큼 상가 점포주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할 것"이라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관광거점도시 전주 여행학교 참가자 모집

### 1~4기 기수별 각 30명씩 선착순 모집

전주시는 시민들이 전주의 숨겨진 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 '2022 관광거점도시 전주 여행학교' 1~4기 참가자를 27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기'라는 주제의 전주 여행학교는 전주 시민이 전주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스

로 '나만의 여행'을 개발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 3년 차를 맞이했다.

전주 여행학교는 여행을 좋아하고 전주 관광 발전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각 기수별로 30명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네이버폼(https://naver.me/FUGO11e)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여행학교 운영팀(010-4169-71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여행학교를 통해 시민들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관광의 모습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주 여행학교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온두레 완산 아울터 건강한 식생활 체험 참여자 모집

### 전주시, 공동체 2곳 참여해 건강 밥상·채식 등 요리체험 진행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온두레 완산 아울터에서 진행되는 건강한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8월 참여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공동체 공유공간인 온두레 완산 아울터에서는 공유주방을 활용해 시민들과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 교육,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 먹거리 활용과 채식요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파운드케익) △이주여성들과 함께 하는 다문화 세계요리 체험(필리핀로피아) 등의 수업을 한다.

프리데코 공동체는 토마토김치&콩고기부쌈마리, 두부드라이카레, 애플타르샌드위치, 우영밥&표고구이공쌈장, 월남쌈&팽이버섯소스오이를 등의 메뉴로 탄소중립을 위한 채식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의 일자별 내용과 신청방법 등 참여자 모집 관련 내용은 전주시청 누리집(www.jonju.go.kr)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주완산소방서, 필로티 구조 건축물 화재예방 만전

### 화재안전 강화 위해 실태조사 등 예방 대책 추진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정수)는 화재 발생 시 연소확대가 크고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 대상 화재안전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필로티 구조는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제외하고 측면을 개방시킨 구조로 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기에 방화 또는 담배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한 개방된 공간으로 바람의 영향을 받아 화재 발생 시 천장재를 통한 급격한 화재확산으로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이날 화재예방 대책으로 △필로티 구조 건축물 현황 실태조사 △취약 필로티 건축물 소방특별조사 △화재취약시설 소방관서장 간담회 △취약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 컨설팅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추진 등을 내놓았다.

김장수 서장은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대형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우려된다. 예방대책을 통해 화재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여름방학을 맞아 다음 달 17일까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놀이연구소 플레이랩'에서 아동체험형 놀이학교 'Summer School'을 진행한다.

## 전주시 드림스타트, 아동 체험형 놀이학교 진행

### 유·초등생 아동 50여명 대상 'Summer School' 개최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여름방학을 맞아 다음 달 17일까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놀이연구소 플레이랩'에서 아동체험형 놀이학교 'Summer School'을 진행한다

이 놀이학교에서는 흙놀이, 물감놀이, 비눗방울놀이, 체육놀이 등 아동들이 평소 실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놀이 전문가와 함께 연령에 맞는 대·소근육 발달과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활동도 펼쳐진다. /김윤상 기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동은 "유치원에 가지 않고 매일 매일 오고 싶다"며 "너무 즐겁고 신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아동 부모는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고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나 자신까지 행복해지는 기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현숙 전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아동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